

생성형 **AI**와 영어학습
연구 논문 모음집

Generative AI and English Language
Learning: A Research Collection

이 용 직

Yong-Jik Lee, Ph.D.

지은이 소개

이용직 (Yong-Jik Lee, Ph.D.)

국립창원대학교 조교수.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교육과정 및 ESOL/이중언어교육 전공으로 철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 영어학을, 미국 Indiana State University에서 TESL을 공부하였다.

생성형 AI와 영어학습, AI 리터러시, 영어매개수업(EMI), 국제교육을 연구하며, 이 자료집에 수록된 일곱 편의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 교육 분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의 에디터·심사자로 동료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영어교수법, 학술 영어 논문 작성, 교육공학, 연구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 자료집에 대하여

이 자료집은 생성형 **AI**와 영어학습을 주제로 수행된 일곱 편의 국제 학술논문을 학생들이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것이다. 모든 논문은 한국 대학의 실제 영어 수업 맥락에서 수행되었으며, 지은이가 제1저자로 참여하였다.

왜 이 논문들을 읽는가

여러분은 이미 번역기와 챗봇을 쓰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용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대체로 감으로만 안다. 이 자료집의 논문들은 바로 그 질문을 실제 대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즉 여러분 자신에 관한 연구다.

이 자료집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내용 학습. 생성형 **AI**를 영어학습에 쓸 때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근거를 통해 이해한다.

둘째, 논문 읽기 훈련. 학술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구 질문에서 결론까지 어떤 논리로 이어지는지를 실제 사례로 익힌다. 졸업논문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특히 필요한 훈련이다.

이 자료집의 구성

구성	내용
제1부 읽기 안내	논문 7편 각각의 배경·방법·결과·시사점 요약과 토론 질문
제2부 종합	일곱 편을 관통하는 다섯 가지 발견과 연구의 흐름
제3부 학습 활동	논문 읽기 워크시트, 요약문 작성 과제, 토론 활동
부록	논문 읽는 법, 학술 용어집, 서지 정보
원문	각 논문의 원문 (수록 시)

이 자료집을 쓰는 법

혼자 읽는 학생은 제1부에서 관심 가는 논문의 안내를 먼저 읽고, 원문을 읽은 뒤, 토론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라. 논문 전체를 처음부터 읽으려 하지 말고 초록 → 결론 → 방법 → 결과 순서로 읽으면 훨씬 수월하다(부록 A 참조).

수업에서 쓰는 경우 한 주에 한 편씩 배정하고, 학생이 요약문과 토론 질문 답변을 준비해 오도록 하면 8주 분량의 읽기 프로그램이 된다.

저작권 안내. 이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각 학술지 및 저자에게 있다. 원문 수록은 해당 학술지의 라이선스(오픈액세스 등) 조건과 저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수업 목적의 활용에 한한다. 원문이 수록되지 않은 논문은 각 항목의 DOI를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목차

구분	내용
제1부. 논문별 읽기 안내	
논문 1	AI 기반 영어쓰기 도구에 대한 대학생 인식 (2024)
논문 2	생성형 AI 기반 대학 교양영어 수업 사례 (2024)
논문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쓰기 전략 (2025)
논문 4	생성형 AI와 학습 동기·인지부하·만족도 (2025)
논문 5	AI 통합 영어쓰기 전략과 학습자 인식 (2026)
논문 6	생성형 AI 영어학습의 인지적·정의적 영향 (2026)
논문 7	한국 대학 EFL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2026)
제2부. 종합	
종합 1	일곱 편이 함께 말하는 것 — 다섯 가지 발견
종합 2	연구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 연구 프로그램의 흐름
부록	
부록 A	학술논문 읽는 법
부록 B	학술 용어집
부록 C	전체 서지 정보
	원문 수록

제1부. 논문별 읽기 안내

각 논문마다 서지 정보 →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 어떻게 연구했는가 → 무엇을 발견했는가 → 나에게 주는 시사점 → 토론 질문의 순서로 안내한다. 원문을 읽기 전에 이 안내를 먼저 읽으면 훨씬 잘 읽힌다.

논문 1. AI 기반 영어쓰기 도구에 대한 대학생 인식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for English Writing Courses

항목	내용
학술지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발행 연도	2024
DOI	10.30935/ojcmt/14195
연구 대상	한국 대학생 80명
주요 주제	AI 기반 쓰기 도구의 장단점과 과의존 문제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Google Translate, Papago, Grammarly처럼 이미 널리 쓰이는 AI 기반 쓰기 도구를 대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한 연구다.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학생들은 번역기와 문법 교정기를 쓰고 있었고, 이 연구는 그 경험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출발점에 해당한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한국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쓰기 도구가 영어쓰기 학습에 주는 도움과 방해를 분석하였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습자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다. 한편으로는 번역 접근성과 오류 확인 기능을 분명한 장점으로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AI 도구에 대한 과의존이 독립적인 영어쓰기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즉 도구가 유용하다는 인식과 그 도구에 기대는 것이 걱정된다는 인식이 같은 학생 안에 함께 있었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AI 도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잘못된 질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이미 유용성과 위험을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질문은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쓸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초안을 쓰기 전 아이디어 정리에 쓰는 것과, 완성된 문장을 통째로 번역기에 맡기는 것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토론 질문

1. 나는 영어 글쓰기에서 AI 도구를 언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어 보자.
2. “과의존”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의존인가?
3. AI 도구를 쓰면서도 내 영어 실력이 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

논문 2. 생성형 AI 기반 대학 교양영어 수업 사례

A Case Study of Implementing Generative AI in University's General English Courses

항목	내용
학술지	Contemporary Educational Technology
발행 연도	2024
DOI	10.30935/cedtech/15218
연구 대상	대학 교양영어 수강생 89명
주요 주제	생성형 AI를 영어쓰기·말하기 수업에 통합했을 때의 동기·관심·자신감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앞선 연구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면, 이 연구는 한 걸음 나아가 실제 수업에 생성형 AI를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룬다. 인식 조사가 아니라 실제 한 학기 수업에 교수모형을 적용한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현장성이 강하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대학 교양영어 수강생 89명이 참여한 수업에 생성형 AI 교수모형을 적용하고, 영어쓰기와 말하기 활동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생성형 AI를 통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동기, 관심, 자신감과 관련된 변화가 관찰되었다. 중요한 것은 도구를 학생들에게 그냥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수업 안에 설계된 방식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쓰이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AI에 물어본다”와 “이번 과제에서는 개요는 내가 짜고, 표현 교정만 AI에 맡긴다”는 전혀 다른 학습 경험을 만든다. 나만의 사용 규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 질문

1. 내가 수강한 수업 중 AI 활용이 잘 설계되었다고 느낀 사례가 있는가? 무엇이 좋았는가?
2. 영어 수업에서 AI를 쓴다면 어떤 활동에 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3. AI를 쓰는 수업에서 교수자가 정해야 할 규칙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논문 3.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쓰기 전략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EFL Writing: University Students' Strategies and Perceptions

항목	내용
학술지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발행 연도	2025
DOI	10.30935/ojcmt/17545
주요 주제	대학생이 생성형 AI를 영어쓰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인식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AI를 쓴다”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글의 구조를 짤 때, 표현을 고칠 때, 문법을 점검할 때 — 학생들은 각 단계에서 다르게 쓴다. 이 연구는 그 전략의 지도를 그린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영어학습자가 생성형 AI를 영어쓰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습자들은 생성형 AI를 아이디어 생성, 글의 구성, 표현 수정, 교정 등 쓰기 과정의 서로 다른 국면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AI 사용이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단계별 전략의 집합임을 보여준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자신의 쓰기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보고, 각 단계에서 AI를 쓸지 말지를 따로 결정해 보자. 특히 아이디어 생성과 구조 짜기 단계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학습에 유리하다. 이 단계를 AI에 맡기면 글은 완성되지만 사고 훈련의 기회는 사라진다. 반대로 교정 단계의 AI 활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토론 질문

1. 내 영어쓰기 과정을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각 단계에서 나는 AI를 쓰는가?

2. 어떤 단계에서 AI를 쓰는 것이 학습에 가장 해로울까? 그 이유는?
3. AI가 제안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과 참고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논문 4. 생성형 AI와 학습 동기·인지부하·만족도

EFL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Cognitive Load, and Satisfaction with Using GenAI for English Learning

항목	내용
학술지	LLT Journal
발행 연도	2025
DOI	10.24071/llt.v28i2.11518
주요 주제	생성형 AI 영어쓰기 수업에서의 동기, 인지부하, 만족도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AI를 쓰면 편해지기만 할까? 이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AI를 제대로 쓰려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하고, 나온 결과가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학습자에게 새로운 인지적 부담이 된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15주간의 AI 통합 영어쓰기 교육을 세 단계로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1. 생성형 AI 영어쓰기의 기초와 윤리
2. 장르별 AI 쓰기 전략
3. AI 결과의 비판적 평가와 포트폴리오 개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습자의 동기와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프롬프트 작성과 AI 결과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인지부하가 발생하였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AI가 공부를 쉽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능력을 요구한다.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프롬프트 작성), 나온 답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비판적

평가). 이 두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쓰이게 될 능력이다.

토론 질문

1. AI에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어떤 정보를 함께 주는가?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차이는?
2. AI가 준 영어 문장이 맞는지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 AI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진 경험이 있는가? 왜 그랬을까?

논문 5. AI 통합 영어쓰기 전략과 학습자 인식

Implementing AI-integrated English Writing: University English Language Learners' Writing Strategies and Perceptions

항목

내용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발행 연도

2026

DOI

10.11591/ijere.v15i1.35461

연구 대상

한국 대학 영어학습자 85명

주요 주제

생성형 AI를 영어쓰기 과정에 통합하는 전략과 학습자 인식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논문 3의 문제의식을 더 큰 규모로 확장한 연구다. AI 통합 영어쓰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한국 대학 영어학습자 85명을 대상으로 AI 통합 영어쓰기 수업에서의 전략 사용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습자들이 AI를 통합한 쓰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 전략들이 확인되었으며, 그 전략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가 함께 보고되었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전략은 배울 수 있다. 어떤 학생은 AI를 효과적으로 쓰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전략을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온다. 이 논문에서 보고된 전략들을 자신의 쓰기 과정에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이 이 자료집의 실질적 목표 중 하나다.

토론 질문

1. 내가 지금 쓰고 있는 AI 활용 전략을 세 가지만 적어 보자.
2. 이 논문에서 소개된 전략 중 내가 아직 써 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 전략을 잘 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결과물은 어떻게 다를까?

논문 6. 생성형 AI 영어학습의 인지적·정의적 영향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on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English Language Learning

항목	내용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발행 연도	2026
DOI	10.11591/ijere.v15i1.35223
주요 주제	생성형 AI 영어학습의 인지적·정의적 장단점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생성형 AI를 영어학습에 쓸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균형 있게 정리한 연구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을 우려하는지를 보여준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습자들이 꼽은 장점은 번역, 시간 절약, 과제 효율성, 동기 유발이었다. 반면 위험으로는 과의존, 독립적 사고의 감소, 학업 부정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업 부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AI 사용과 부정행위의 경계는 외부에서 규정하기 전에 학습자 자신이 이미 느끼고 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과제물의 사고와 판단이 자신의 것인가가 기준이 된다. 표현을 다듬는 것과 내용을 대신 만들게 하는 것은 다르다.

토론 질문

1. “독립적 사고의 감소”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2. AI 사용이 학업 부정이 되는 선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수업의 기준은?
3. 장점 네 가지와 위험 세 가지 중,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논문 7. 한국 대학 EFL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English Learning: Insights from Korean University EFL Students

항목	내용
학술지	Journal of Asia TEFL
발행 연도	2026
DOI	10.18823/asiatefl.2026.23.1.10.128
연구 대상	교양영어 수강 대학생 73명
주요 주제	생성형 AI 사용 경험, 기술 준비도, 영어학습 효과, AI 교육의 필요성

무엇을 다루는 연구인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도구를 쓰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학습자들은 주로 **ChatGPT**와 **Google Translate**를 사용하였으며, 실시간 피드백과 번역 지원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AI**를 영어학습에 활용하는 공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나에게 주는 시사점

이 발견이 이 자료집이 만들어진 이유다. 대부분의 학생이 **AI**를 쓰지만, 어떻게 써야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배운 적은 없다. 도구를 쓸 줄 아는 것과 학습에 효과적으로 쓸 줄 아는 것은 다르다. 스스로 배우려는 태도가 그 격차를 메운다.

토론 질문

1. 나는 **AI**를 영어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배운 적이 없다면 어떻게 익혔는가?
2. **AI** 활용 교육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배우고 싶은가?
3. 이 자료집의 논문들을 읽고 내 사용 방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제2부. 종합

종합 1. 일곱 편이 함께 말하는 것 — 다섯 가지 발견

논문을 한 편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곱 편을 겹쳐 놓고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결과일수록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

발견 ① 유용성과 위험은 같은 학생 안에 함께 있다

논문 1과 논문 6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AI 도구의 장점(번역 접근성, 오류 확인, 시간 절약, 과제 효율성, 동기 유발)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동시에 위험(과의존, 독립적 사고 감소, 학업 부정 가능성)도 인식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AI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찬성이나 반대냐”로 흐른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의 경험은 그렇게 나뉘지 않는다. 유용하다고 느끼는 그 학생이 동시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금지나 방임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이다.

발견 ② 문제는 ‘쓰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쓰느냐’다

논문 3과 논문 5가 밝힌 것이다. 학습자는 아이디어 생성, 글의 구성, 표현 수정, 교정 등 쓰기 과정의 각 국면에서 다르게 AI를 사용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AI를 쓴다”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다. 개요를 AI에 맡기는 것과 완성한 문장의 문법을 점검받는 것은 학습 효과가 전혀 다르다. 자신의 쓰기 과정을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사용 여부를 따로 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이다.

발견 ③ AI를 잘 쓰려면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논문 4가 보여준 것이다. 15주 수업에서 학습자의 동기와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프롬프트 작성과 AI 결과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인지부하가 발생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AI가 공부를 자동으로 쉽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두 가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나온 답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능력은 훈련으로 길러지며, 영어학습을 넘어 앞으로의 학업과 직업에서 계속 쓰이게 된다.

발견 ④ 대부분의 학생은 AI 활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논문 7의 결과다. 학습자들은 ChatGPT와 Google Translate를 이미 쓰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AI를 영어학습에 활용하는 공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도구에 대한 접근성과 그것을 잘 쓰는 능력은 별개다. 이 격차가 학생 간 학습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배우려는 사람과 그냥 쓰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발견 ⑤ 설계된 통합이 경험을 바꾼다

논문 2가 보여준 것이다. 생성형 AI를 수업에 설계된 방식으로 통합했을 때 학습자의 동기·관심·자신감과 관련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도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떤 규칙으로 쓸지가 정해질 때 비로소 학습이 달라진다. 수업에서든 혼자 공부할 때든 마찬가지다.

종합 2. 연구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 연구 프로그램의 흐름

이 일곱 편은 따로따로 발표된 논문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 발전해 온 과정이다. 학술 연구가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단계	던진 질문	해당 논문	연도
① 인식	학생들은 AI 쓰기 도구를 어떻게 보는가	1	2024
② 수업 적용	실제 수업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2	2024
③ 전략	쓰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3, 5	2025-2026
④ 인지·정의적 영향	동기·인지부하·만족 도는 어떠한가	4, 6	2025-2026
⑤ 준비도	학생들은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7	2026

흐름을 읽는 법. 연구는 대체로 넓고 얕은 질문에서 좁고 깊은 질문으로 이동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인식)를 묻고,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전략), 그다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낳는가”(영향)를 묻는다. 여러분이 졸업논문이나 연구계획서를 쓸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하나의 관심에서 출발해 질문을 좁혀 가는 것이 연구다.

종합 3. 이 연구들이 아직 답하지 못한 것

좋은 독자는 연구가 밝힌 것뿐 아니라 밝히지 못한 것도 본다. 이 일곱 편은 대체로 학습자의 인식과 자기보고에 기반한다. 따라서 다음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 AI 활용이 실제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사전·사후 점수 비교)
- AI를 쓴 집단과 쓰지 않은 집단의 결과 차이(비교 설계)
-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남는지(종단 연구)
- 학습자가 우려한 학업 부정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 학생이 아닌 교수자는 AI 통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와 “실제로 실력이 늘었다”는 다른 주장이다. 논문을 읽을 때 이 구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비판적 읽기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빈틈은 여러분이 연구자가 된다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부록

부록 A. 학술논문 읽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다. 다음 순서를 권한다.

1단계 — 초록(Abstract)을 읽는다. 연구 전체가 200단어로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 이 논문을 계속 읽을지 판단한다.

2단계 — 결론(Conclusion)을 읽는다. 저자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먼저 안다. 목적지를 알고 출발하는 셈이다.

3단계 — 방법(Method)을 읽는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다. 80명 설문과 5명 면담은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4단계 — 결과(Results)를 읽는다. 표와 그림을 먼저 보고, 본문에서 그 설명을 찾는다.

5단계 — 논의(Discussion)를 읽는다.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다. 결과와 해석을 구분하며 읽는다.

6단계 — 서론(Introduction)으로 돌아간다. 이제야 왜 이 연구가 필요했는지가 제대로 이해된다.

영어 논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모든 단어를 이해하려 하지 말라. 각 문단의 첫 문장만 이어 읽어도 논문의 뼈대가 잡힌다. 학술 영어는 첫 문장에 핵심을 두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부록 B. 학술 용어집

용어	영문	뜻
초록	Abstract	논문 전체의 요약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	이 연구가 답하려는 물음
선행연구	Prior/previous research	이전에 이루어진 관련 연구
문헌 검토	Literature review	선행연구를 정리·종합한 부분
연구 방법	Method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절차
표본	Sample	실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수치와 통계로 분석하는 연구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경험·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피는 연구
혼합 방법	Mixed methods	양적·질적 방법을 함께 쓰는 연구
인지부하	Cognitive load	학습 중 사고에 걸리는 부담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시사점	Implications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계	Limitations	이 연구가 말할 수 없는 범위
동료심사	Peer review	전문가들이 논문을 심사하는 제도
SSCI · SCOPUS	—	국제 학술지 색인(수록) 데이터베이스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논문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DOI로 원문 찾는 법. 주소창에 <https://doi.org/> 뒤에 DOI를 붙여 넣으면 해당 논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예: <https://doi.org/10.30935/ojcmt/14195>

부록 C. 전체 서지 정보

번호	논문	학술지	연도	DOI
1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for English Writing Courses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2024	10.30935/ojcmt/14195
2	A Case Study of Implementing Generative AI in University's General English Courses	Contemporary Educational Technology	2024	10.30935/cedtech/15218
3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EFL Writing: University Students' Strategies and Perceptions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2025	10.30935/ojcmt/17545
4	EFL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Cognitive Load, and Satisfaction with Using GenAI for English Learning	LLT Journal	2025	10.24071/llt.v28i2.11518
5	Implementing AI-integrated English Writing: University English Language Learners' Writing Strategies and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2026	10.11591/ijere.v15i1.35461

- | | | | | |
|---|---|---|------|------------------------------------|
| 6 |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on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English Language Learn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 2026 | 10.11591/ijere.v15i1.35223 |
| 7 | Integrating Generative AI into English Learning: Insights from Korean University EFL Students | Journal of Asia TEFL | 2026 | 10.18823/asiatefl.2026.23.1.10.128 |

모든 논문의 원문은 위 DO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자료집 뒤에 원문을 수록하였다.

원문수록

Full Texts of the Seven Papers

이하 지면에 논문 7편의 원문을 수록한다.

각 논문의 저작권은 해당 학술지와 저자에게 있으며, 수업 목적으로 활용한다.